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志願兵訓練所開所式에際하야

一

朝鮮統治史上에 한「에포크메이킹」이요 南總督의 一大英斷政策下에 朝鮮에 陸軍特別志願兵制度가 實施되게되는데 對하야 이미 本欄에 屢次 우리의 意見을 表한바 잇거니와 去四月三日의 神武天皇祭日을 卜하야 本制度가 公布되고 그實施에 對한 모든 準備가 着着進行하는中에 잇는데 그동안 一般民衆의 熱烈한 期待가운데에서 志願兵願書接收期限인 四月十日까지에 志願者數는 三千名을 超過하는 盛觀을 낫타내엿고 그中에서 各道知事의 銓衡으로 推薦을받은者를 考査하야 嚴選에 嚴選을 加하야 二百二名이 合格되여서 去十三日에는 臨時訓練所인 城大法文學部에서 入所式을 擧行하엿고 今日은 南總督의 臨場下에 訓練所의 開所式을 擧行하게되엿다 이것이 어찌國家의 慶事가아니며 慶幸이 아니랴。

二

元來本制度의 實施精神은 南總督이 言明한바와가티『我國의 朝鮮統治는 歐米諸國의 植民政策과는 根本的으로 差異가잇다 外國의 植民政策은 過去數世紀에 功罪가相半하야 本國을富케하고 幸福스럽게하는 搾取政策이엿다 그러나 我國은 根底로부터 달러서 一視同仁 赤子에 御仁慈를 주압신統治인것이다 日韓併合以來二十有七年 聖旨로써 歷代先人은 施政에 御稜威의 庇護를밧들고 今日의 實을擧하야 內鮮一體에 邁進하엿다』『今回志願兵制度를 생각하게된것은 朝鮮民衆에게 國防思想을 徹底化시키고 將來우리의國土는 우리의힘으로 防禦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것을 가르키는데에 잇다 그리고 이제朝鮮民衆의實情은 그域에 達하엿다는것을 認定하고서 큰權信을 가지고 一大施政에 邁進하는것이다』라는것으로 잘 觀得할수가잇다。

三

또 軍當局의 小磯軍司令官의 談을 드르면『今回의 志願兵制度의 御採用이 歷代天皇게서보이압신 一視同仁의 聖慮에 基한것임은 말슴하기에도 惶恐하오나 半島同胞가 皇國臣民으로서 至高至大한 國防의 任務를負荷하게됨에 對하여는 가티 그意義를 省察하고 또 그覺悟를 새롭게할 必要가 크다고 信한다』『이를要컨대 我朝鮮同胞는 기리 宇宙의悠久한 歷史를 省察하고 現下東亞의事態를 認識하고 새로皇國의使命을 一層堅確히 把握하여서 今次志願兵制度를 御制定한 聖慮에 奉應하기를 祈願하야 마지아니한다』고하엿다 이도 今番志願兵制度의 實施에對한 根本趣意를 가장 잘宣明한것이라고할것이다。

四

要컨대 今番志願兵制度의 實施는 爲政當局에서 上으로 一視同仁의 聖慮를 奉體하고 下로 半島民衆의 愛國熱誠을 보아서 內鮮一體의 大精神으로 從來 朝鮮民衆이 國民으로서의 義務를 完全히 다하지못하고 잇던 兵役義務의 第一段階를 實現하는것이다 皇國臣民된사람으로 그누가 感激치아니하며 그누가 感謝치 아니하랴 다만오날의 開所式을 當하야 特別히 이번에 嚴選中嚴選으로 選拔된 志願兵士들은 이와가튼 重大且

江東原田兩部隊合勢 轉江口砲台占領

大砲八門과其他戰利品多數 荒山附近敵兵擊退코

【安慶十四日發同盟】十二日 揚子江江岸太子磯에 敵前上陸을行한 江東部隊 原田部隊는 夜間비를무릅쓰고 上陸直時 西南方에進擊을開始하야 安慶의陸海軍과協力 敢然轉江口砲臺北方六키로에서 頑强히抵抗하는 敵六十을殲滅하고 다시 荒山附近의敵을擊退하야 十二日正午 一擧에轉江口砲臺를占據하엿다 轉江口砲臺는 新舊大砲八門을備置하엿는데 彈藥多數와아울러 이를鹵獲하야 我海軍의遡航을防禦하든 重要據點을潰滅하엿다 我損害는皆無로 江東部隊의意氣는 益益旺盛하다

揚子江進擊과 海軍部隊의活躍

【上海十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二時發表

一、揚子江進攻部隊는 昨十三日安慶占領後 다시進擊을繼續中으로 昨日早朝 海軍陸戰隊는 安慶江岸에 上陸、江岸地區를 占領하고 陸軍部隊와의 連絡을 確保하엿다

一、昨日早朝上陸한 海軍特別部隊는 陸戰隊와連携、午前九時 安慶飛行場을 占領하엿다

一、海軍航空部隊는 連日의 惡天候를 무릅쓰고 揚子江進攻部隊와 協力하야 江岸의岸壁을爆破制壓하는同時에 進擊部隊의 促進을援助支援하엿다

國府漢口防備陣完成

【上海十四日發同盟】漢口來電에 依하면 漢口防備에狂奔하는 國府는 防備를强化하고저 十四日武漢警備司令 陳誠을 湖北省主席에 任命하엿스며 前任者 何成濬을 軍法會議主席判事에 任命하고 또駐獨大使 程天放은歸任하고 이에代하야 外交部次長 陳介가 그後任에 當할려이다

皇太子殿下 上野動物園에行啓

【東京電話同盟】皇太子殿下께서는 十四日上野動物園에 처음으로 行啓하섯는바 이날은 御召自動車도 前例업는 黑塗의自動車를使用하시지안코 御乘車하시고 御途中에도 交通遮斷업시 平常대로街路를御覽하시면서 動物園에 行啓하섯다 御途中 兩側에는 市民의 堵列이나 奉拜者도업시 市電 뻐스 自動車 추럭 三輪車 自轉車等이 御眼을 스치고 御途中의市民은 屋內屋外 或은 二階等에서 行啓하심을 알지못하고 各其 家業에분주하고잇섯다 그中에는 行啓하심을알고 옷깃을바로잡고 恭遜히 奉拜하는者도잇섯다 自動車音響은 惶恐하옵게도 이가티 平常대로 騷音이들리는中을 進行하신바 이것은民衆의 不便을 생각하신 惶恐하온 御軫念으로 拜察되여 市民은 感謝하온 御軫念을拜하고 恐懼感激하엿다

金門島占領發表

【東京電話同盟】我海軍은 南支那交通遮斷作戰의 必要上昨年十月二十六日 臺灣海峽의 要衝인金門島를占領하엿다 金門島는 廈門의東方六里의 海上에 잇는데 我馬公과相對하야 臺灣海峽의 咽喉를 制하는 地位에잇다 去五月一日 廈門占領과相俟하야 海軍作戰部隊는 玆에完全히 臺灣海峽의軍事的要點을 手中에收하엿다 金門島의現狀은 我宣撫班의 銳意文化工作에努力한 結果 支那側의 反日報道에도不拘하고 治安이顯著히 回復되여 人口도占領當時는 一萬三千假量에不過하든것이 四月中旬의調査에 依하면 二萬에達하여잇다

英國防公債 八千萬磅發行

【倫敦十三日發同盟】英國大藏省은 十三日 新國防公債八千萬磅을 左의條件에依하야 發行하는旨를 發表하엿다

一、發行價格百磅에對하야九十八磅

一、償還期限 一九五四年부터開始함

一、利率年三分

黃河堤防決潰의 支那軍暴擧로 大本營當局談發表

【東京電話同盟】我軍의 正當한

敵軍黃河堤防決潰로 中牟附近水國化

蔣介石은日本軍所以라고放送 我軍防水作業에努力

廣東空爆을 好材料로 第三國의 同情을 어드려고 모든데마放送을 行하고잇는 蔣政權은 無辜의 支那民衆을 黃河堤防決潰에 依하야 濁流에 빠지게할과가튼 惡虐無道의 非人道的行爲를 行하고잇다 此에對하야 我軍은民衆救濟를爲하야 眞摯한 努力을 繼續하고잇는데 右에關하야 大本營陸軍部에서는 當局談을 發表하엿다

【開封十四日發同盟】抗日計畫에서 黃河堤防決潰에依하야 刻刻으로 增水되는물은 三柳寨附近의 約二百米의 決潰個所로부터 地響이 나즌東南方으로 向하야奔流하야 時速二、三百米가되는바 이미 隴海線中牟附近에서 濁水는 滔滔하야 黃河는逆流狀態로된때문에 미처逃亡치못한 農民으로 溺死하는者不知其數이다 開封附近의住民은 暴戾한支那兵의行動에 對하야 極度로 憤慨하야怨聲이充滿하엿다

【北京十四日發同盟】十四日午後五時軍當局談=連戰連敗 特히徐州會戰의 大敗以來 皇軍無敵의 威力에 屈伏하고 이미 戰勝의 希望을일은 黨軍은 實力으로서는 我破竹進擊을 阻止할수업슴을깨닷고 卑怯하게도 鄭州北方의 金水鎭附近及 中牟 西北方의 瀛南、三柳寨附近의 黃河堤防을 決潰하엿스므로 河水는 附近一帶에 氾濫하야 沿岸住民은 永年살고잇던 家屋을잃코 粒粒升稱의田畓을 일흘뿐아니라 生命까지危險하게되엿스므로 我軍에서는 이를可恐할 水害를 防止하기爲하야 特히 作業部隊를急派하야 附近住民과協力、破壞個所修復에 努力하고잇는데 此에對하야는 支那軍은 盛히 妨害하므로 我作業部隊는此를排除하면서 防水의難作業에 晝夜兼行、꾸준한 努力을繼續하고잇다 또附近住民도 또한 感激하고 危險을 무릅쓰고 我部隊와協力、鄕土의 浸水防止에 눈물겨운 活動을 繼續하고잇다 그러고 黨軍은또다시 새로決潰를 企圖하므로 我軍은 此를阻止하기爲하야 部隊를 黃河沿岸에 進軍시켜서 敵을驅逐하야이企圖를 挫折시키며잇는데 年年水害에 苦悶하는 그慘禍를 熟知하는 彼等으로 아모리敗戰에依한 窮餘之策이라고하지마는 自國國土를 荒廢에歸케하고 住民을死에陷케하는 如斯히 黃河를氾濫케하는 暴擧에나왓다는것은 全혀國利民福을無視하고 다만自己保全에汲汲하는 非人道的行爲로서 神人共히 容恕치못할 暴擧이다 然而 蔣介石도 良心의呵責을바덧든지 뻔뻔하게도黃河決潰는 日本軍의所爲라고 放送하엿다 그罪가더옥크며 目的을爲하야 手段을選치안는 彼等의

急激한水勢로 防水工作不可能

慘의極、生地獄!

【東京十四日發同盟】鄭州附近의 防備에懸念이업는 敵은 金水鎭、三柳寨의 三地點에서 黃河堤防을破壞하야 그때문에增水期에 잇는黃河의 濁流는 滔滔氾濫하야 住民中 溺死者 不知其數로 이미十數萬의 無辜한 住民은 悲慘하게도 그犧牲이되엿다고한다 이神人이 共怒할暴擧는 거듭되는敗戰에自暴自棄가된 中央正規軍의손에依하야 組織的으로 斷行된것으로 蒲灘에서는 幅十米기되十五米의堤防破壞를 十數個所라하는關係도 落差가緩和된 河의濁流는 上流로부터 흘러내릴뿐만아니라 下流로부터도 逆流하는現狀으로 얼마안되야 決潰口는 百五十米假量으로 廣大되엿다 方今水勢는 秒速 一米二〇으로 中牟 附近에서는 水深 一米에 達하야 我軍은作業部隊로써 應急處置를講究하고잇스나 水勢巨大하야 이미 人力으로서는 到底히 防禦키 困難하게되엿다 特히 金水鎭方面의 決潰個所는 敵陣中에 잇기때문에 修復할수업서서 濁流는 滔滔히 河南平野에 殺到 水中에빠저 救助를 求하는者四野에充滿하야 阿鼻叫喚의 生地獄으로化하엿다 我軍은 支那軍의 暴狀에窮한 愴激罹難民의救出에 必死的努力을 하고잇는데 自國의 國土를 荒廢에 歸케하고 自國民을 大量殺戮하고도 不顧하는 支那軍의 이暴擧로말미암아 金水鎭中牟間의 支那軍陣地는 水沒이되야 支那軍自身도 溺死者가 만흔것은 當然으로 天罰이라고 할것으로 河南平野에 支那의暴狀을 呪呪하는 怨嗟의聲은 充滿하엿다

三百廿回廣東空襲에 爆死者僅二百七十

支那側의誇大한宣傳이 遂暴露 十四日情報部長談發表

【東京電話同盟】我軍의 廣東爆擊에 對하야 國民政府는 非戰鬪員의 死傷者數를 誇張하야 諸外國의 同情을 求하고잇스나 外務當局에서는 最近廣東省政府宣傳局長李漢之가 廣東中山日報에 發表한바에依하야 十四日左와如한 情報部長談을發表하엿다

皇軍의 廣東空襲에關하야 敗戰支那는 各國의同情을 어드려고 非戰鬪員의 被害를 誇大히 放送하야 香港新聞에 國民政府當局은 六月六日만의 廣東空襲에依하야 死傷者一千 破壞家屋一千、五月二十八日以來의 死傷者 七千으로 公表하고 諸外國에서도 右宣傳에 眩惑되어 皇軍의 非難의 엿스나 廣東省宣傳局長李漢之가『空襲의敎訓』이러고 題하고 六月十一日 廣東中山日報에 掲載한 記事에依하면 同宣傳局管內인 廣東市의 被害는 昨年八月十八日第一次爆擊以來 現在까지 警報日數三百二十餘回 爆死者約二百七十餘名 負傷者七百餘名 爆擊家屋四十餘戶에 不過하다 右와 如한 報告에 依하야 從來支那側의 데마가 暴露되고 잇는것이다 皇軍의 空襲에 依한 非戰鬪員의 被害가 極少한것을 立證하는 同時에 支那의 誇大宣傳에 迷惑되여 잇는 諸外國에 對하야 時局認識을 促進할것이다

大谷拓相離京

朝鮮視察의 豫定으로京城에서 一泊한 大谷拓相은 十四日午前八時 朝鮮호텔發 自動車로 仁川에가서 港灣과 잇는 施設을 視察한後 午後一時다시 朝鮮호텔로 도라와서 少憩한後 豫定이든바 天候가 不良하야 豫定을 變更하고 午後二時四十分京城驛發列車로 歸京途에 올랏다

宇垣外相近近 板垣陸相과會見

隔意업시所信披瀝乎

【東京電話同盟】宇垣外相은 事變擴大에 對應하려고 外交刷新을 確立할期하고 就任以來 內는勿論 關係各方面의 意嚮을 聽取하는一方 昨日各國使臣과도 會見하야 事變을圍繞한國際情勢의 動向에對하야 기픈檢討를 進行하고잇든바 五相會議를 압두고 板垣陸相과 會見하야 現地情勢及 戰局의 進展等에對하야 陸軍側의 意向을 聽取하고 아울러 外相으로서의 所信을 披瀝하야 隔意업는 懇談을 遂하기로되엿다

煤炭山敵을潰滅

【安慶十四日發同盟】安慶으로入城한 高橋部隊와 서로呼應하야 入城한 佐藤部隊는 十三日午前 桐城으로부터 安慶에 通하는道路를 安慶北方에서 遮斷한바 다시 前進하야 一部는 同日午後二時安慶西北方煤炭山에 據居하는 約三百의 敵에게 猛擊을加하야 이를 潰走케하엿다 敵의遺棄死體는 五十七、小銃數其外彈藥多數를 鹵獲하엿다

佛支協定說 佛國側全然否定

【巴里十三日發同盟】佛國의對支援助에關한 報道에關하여는 佛國官邊은 全然이를否定하야 巴里에서의 佛支協定說을 一笑에 附하고잇다

徐州西南方에서 諸島大尉戰死 元京城憲兵隊副官

徐州大會戰後의 殘敵肅正工作中 去五月二十八日 徐州西南方地區에서 壯烈한 戰死를 遂한 諸島憲兵大尉는 佐賀縣出身으로 士官候補生四十期의 卒業生으로 일즉이 昭和十年三月부터 同十一年에이르기까지 京城憲兵隊副官으로 勤務 其後 關東軍憲兵隊에서 今次事變에서 治安維持의 重任을 帶하고 出征活動하엿다 京城에는 아직 戰時의 情報가업스나 憲兵將校의戰死는 그任務의 性質上 大端히 드문일이다 同大尉는 京城隊의 副官時代는 溫厚한 人格者로 上下의 信賴가 두터웟섯스니만치 그戰死는 各方面에서 哀惜하고잇다

蛟龍丸又復出港不能

【東京電話同盟】蛟龍丸査證拒否事件에 對하야 十三日午後二時 田中丸露水組合副長은 昨日蘇聯大使館을 再次訪問코 懇談하엿든데 蘇聯側은 前言에反하야 蛟龍丸이 管理船이오 그交涉에關하야는 條約上에 何等規定도업다는 意見을 述하야『船海證明書交附에關하야 目下 本國政府에 請訓中이므로 十四日午前十時까지에 回答하겟다』고 査證回避의 態度에 나왓스므로 蛟龍丸의出港은 又復延期할수박게업시되엿는데 十四日의 蘇聯側回答 매우 重大視된다

中支振興總裁에 兒玉氏就任受諾

【東京電話同盟】中支振興會社總裁就任交涉을 바든前正金銀行頭取 兒玉謙次氏는 十四日午後三時五十分同會社 設立委員長 卿男을麴町의 私邸로 訪問하고就任受諾의 回答을하고 여러가지로 懇談한後 同四時十五分辭去하엿다

夕刊後市況 十四日

◆各地 期米 後止◆

	當限	中限	先限
大邱	—	三一·五	三一·七
釜山	—	—	三一·八四
群山	—	三一·〇三	三一·三
木浦	—	—	三一·〇〇
下關	—	—	三四·七
名古	—	—	三五·二五

◆各地 品商 後引◆

	當限	先限
大阪棉花	—	五四·二五
大阪人絹	八七·〇〇	八〇·二〇
東京人絹	八〇·三〇	八九·五〇
福井人絹	八〇·三〇	八〇·四〇
橫濱生糸	六八〇·〇〇	六八四·〇〇

南支方面爆擊

【上海十四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二時發表=南支方面에서는昨十三日左記와如히 攻擊하엿다

가、廣東北方粵漢鐵道攻擊部隊는 郭塘驛倉庫를 爆擊하야 線路數個所를 爆破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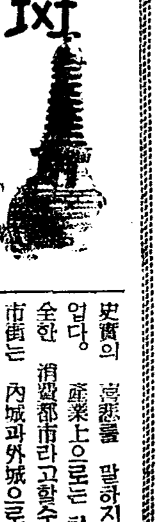
나、福建方面의 防空施設攻擊部隊는 福州惠安建甌飛行場을攻擊하야 飛行場滑走路를 爆破하엿다

人事·集會

▲二宮憲兵司令官 十四日午後二時四十五分 京城驛發向釜山十五日 午後四時二十三分 歸任豫定

▲海田要氏(朝鮮總督府陸軍志願者訓練所教授) 新任人事次來社

滿支産業視察一斑



古文化都市北京 貿易의中心地天津과張家口 ⑦

李勳求

七、北京天津張家口中心地帶

北支一帶의 産業的價値가 前述한바와가티 多大하고 또世界列强이 至今까지 注視하고 잇는 重點도 이것에 잇는것도 大略 述하엿다 그러나 北支一帶에 잇서서의 權益問題로 이러나는 政治的 外交的 또는 軍事的 事件을 말하려면 그槪略이라도 到底히 紙面이 許諾지안는다 다만 北支一帶에잇서서 이와가튼 尨大한 資源이 잇고 또 그資源을 두고 角逐하고잇던 活舞臺의 中心은 北京과 天津에 잇섯다는것은 가릴수업는 事實이다 또우리 視察團一行도 北京天津張家口를 視察하엿스므로 此等地를 個別的으로 記述하여보려고한다。

北京은 民國十七年政府成立과아울러 北平이라고 改稱하엿다가 今回事變後에 다시 北京으로된 支那의首都다 그런데 北京은 都市로서의 盛衰의 자최를 차지려면 實로 支那歷史의 大部分을 記述치아니하면안될것이다。그러므로 그 盛衰에 對하여서는 略하여바릴수밖게 업다。다만한가지 말할것은 北京이처럼 國都가되기는 距今一千餘年前에 滿蒙地方에서 興起한 遼가 此地에 奠都하므로 始作되고 그後에 元、明、淸의歷代帝都가 되엿든것이다。一名燕京이라고도하는데 그것은 이地方이 古代支那의 燕國이엿기때문이다 어쨋든 千有餘年을두고 支那의 首都로 되여잇섯기때문에 또 淸朝의 康熙 雍正 乾隆三代에 亘하는 燦然한東洋文化의 黃金時代도 實로 이北京을中心으로 興起하엿기때문에 北京은 實로 歷史의 都市요 文化의都市다。今日에 잇서서 한줌의흙 한덩이의 돌이 古往今來의 史實의 哀愁를 말하지안는것이업다。産業上으로는 차라리 完全한 消費都市라고할수가 잇다 市街는 內城과外城으로되엿는대 內城에는 主로 官衙街 住宅街요 外城은 主로 商店街이다 名勝으로는 紫金城의故宮 萬壽山의 頤和園 觀象臺 喇嘛廟 孔子廟 玉泉山 景山 南海 中海 北海의公園 天壇 先農壇 社稷壇等이 가장著名하고 이런곳에 잇는 建築物도 中國式藝術의 極致를 다하여서 觀者로 하여금 驚然케하는것이만타 交民巷은 北京中의特別市인데 日、英、米、佛、伊、獨、白、蘭、西、丁、其他各國의 使館이 이곳에잇고 日、英、米、佛、伊의護衛兵이 駐屯하고잇으며 各國의商館도 여긔에잇다 이區域의 行政은大公使館行政委員會에依하야 實行되고잇다 人口는正確한 人口調査가 업서서 알수업스나 적어도百萬은 되리라고하는것이다。

天津은 一八六〇年 北京條約에 依하야 開港된곳으로 北支貿易의 第一港이다 그러나 港口自體로는 天惠가업는 白河河畔에잇는 河港이다 市街의 中央을 貫流하는 白河야말로天津을 生長發育한 母體라고 하여도 過言이아니다 即 白河 大運河 西河等河流의 合流點에面한 一、六五三平方粁의 天津市街가 열리여 現在는 人口百二十四萬五千人에 達하는 大都會가되엿다 朝鮮人은 約二千三百이 居住한다고 하는데 日英伊佛의 各國租界가잇고 또 獨墺露等諸國의 租界로써 特別市가 成되여잇다。天津은 北支貿易의 中心地이고 또 各國의 租界가 잇는만치 東西의 物貨가 輻輳하여서 商業이 가장 活潑殷盛을 極하고잇다。北支貿易을 支하려면 이곳을 내여노코는 다른곳에 업슬것이다。

張家口는 有名한 萬里長城에 設置한 約三十個의 關門의 하나이다。그리하여서 北支와 蒙古와의 貿易上 軍事上 關門이다。이곳은 光緖二十八年 露支條約에依하야 商埠地로 開放되엿고 또 그後에 京綏線의 開通됨을 따러서 市街는 極히 繁昌하게되엿다。察哈爾省의 首府요 現在에는、蒙疆委員會의 所在地로 政治的中心地인 同時에 北京以北의 北支에 잇서서의 最大商業都市다 이附近에서 자장 興味가 잇는것은 이地方一帶에 約七萬頭에 達하는 駱駝가 使役되여서 所謂蒙古沙漠에 通하는 唯一의 輸送機關노릇을 하는것이다。蒙古方面으로부터 오는 物資는 主로 羊、牛、馬等 家畜의 皮物、狐、狼、貂、獺、灰鼠等의 毛皮、乾葡萄、甘草、麝香、鹿茸等 藥材가 主가된다。어쨋든 蒙古方面에對한 商業의 中心地다。

以上에서 極히 簡單하고 極히 粗略한 視察의 一端을 記述하여보앗다。元來가 學術的으로 調査研究한것이아니오 國策이되기때문에 筆者自身으로서도 非科學的이라는 부끄러움을 느끼게된다。그럿타고 決코 본바를 一一히 다 記述하지 못하는데도 큰 遺憾이잇다。後日의機會를 俟하야 北支에 關한 學術的論文을 抄하여서 責任을 免하려고하고 이로써 擱筆하여둔다。(完)

イカリソース

아픔과…… 결림은……

언제突發할른지모르지마는、本劑의準備로、安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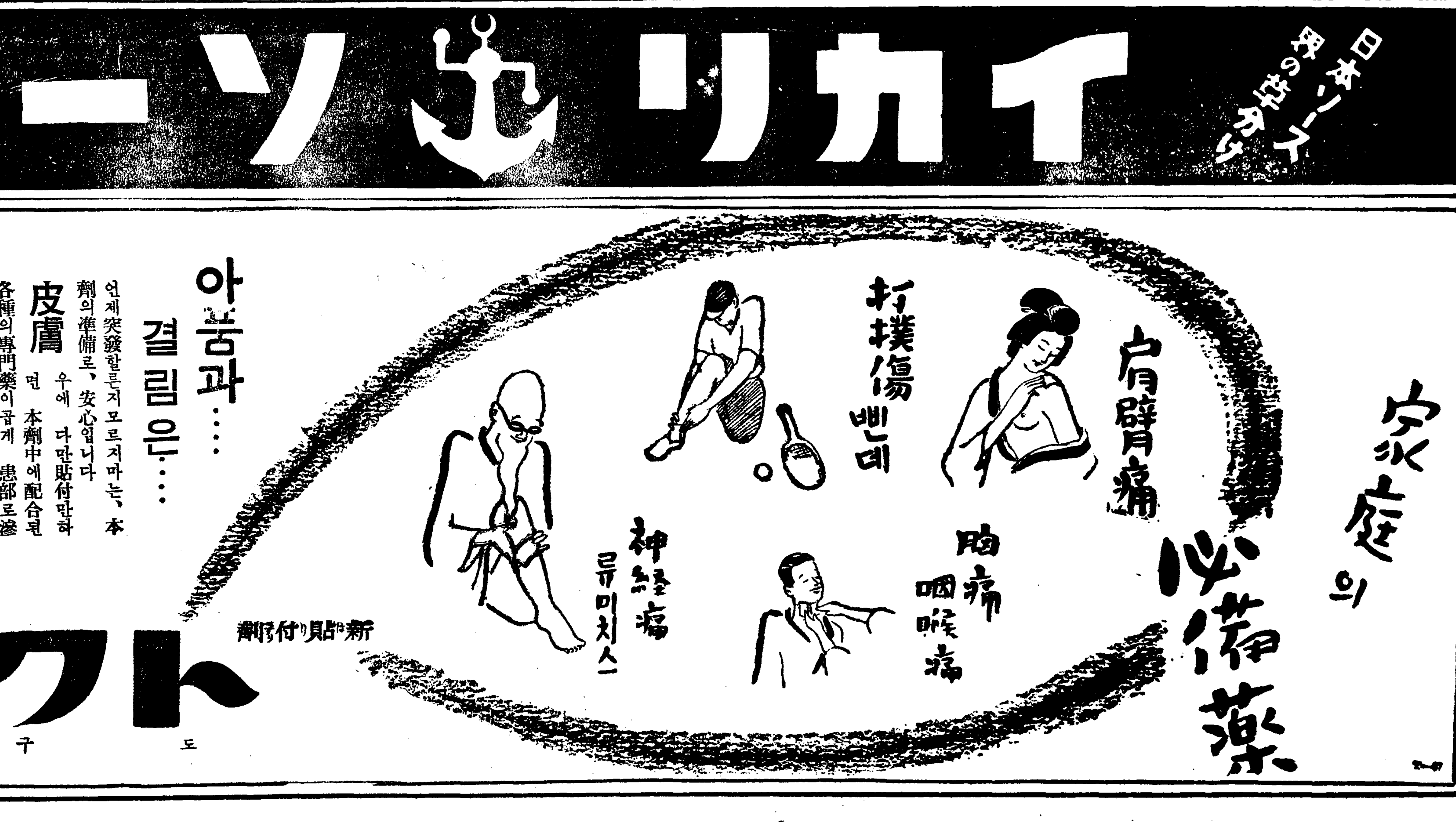
皮膚 우에 다만貼付만하면 本劑中에配合된 各種의專門藥이곱게 患部로滲透、病原의鬱血과老廢毒素를淸掃하고、炎症을除去하고血行을調整해서病苦를病因的으로排除합니다

奏効가的確迅速한우에 찐덕거리잔코부친자죽도남지안코使用이爽快하기때문에到處에서大好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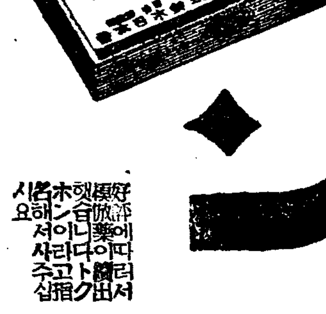
各地藥店にあります 廿錢・卅錢・五十錢 一圓・二圓・三圓

慰問袋に……

戰地에서는不時의故障과過勞가만흐니 단一箱의トクホン이어떠케歡迎밧는지모릅니다 慰問袋에는꼭本劑를잇지마시도록……



新貼付劑



トクホン
도구혼

發賣元 鈴木日本堂

鎭南浦水源池에不祥事件

興奮된四百部落民과 警官隊衝突·大亂鬪

重輕傷者도若干名

動機는水源池擴張反對空氣가惡化

【鎭南浦에서 本社特派員 金曉炯電話】 진남포부의 제이수원지 확장예정지인 룡강군삼화천(龍岡郡三和川) 상류에서 반대하는 주민의형세를 경계하기위하야 경관수십명의 경계리에 측량에종사하고잇던 차 십사일오후두시경 흥분한 사백여주민이 측량대와 경관대를포위하고 쌍방이 충돌되여 각각 중경상자를내고 평양 진남포 룡강 세지방 일백사십여명의 무장경관대가 출동하게되여서 사태가험악해젓다

진남포부에서는 수원확장후의 하야 그부지로서 룡강군삼화면 삼화천(龍岡郡三和面三和川)상류의 충흥(忠興)룡문(龍門)흑ㅇ(黑ㅇ)이上의 세부락을 지정하고 오월하순이래 실지측량을 하고잇섯는데 이곳에 수원지가되면 그 세동리의 전답이 물속에 파뭇처버릴뿐아니라 그냥잇는 논에도 물을어더대일수가 업게되므로 어것은 세부락 사백여호의 생명선을 뺏는거나 맛찬가지라하야 수원지측량을 반대하고잇던 부락민들은 벌써부터 불온한 공기가 떠돌고잇스므로 소관할룡강서에서는 경관십여명을 현장에파견경계하고 잇섯는데 십사일오후두시경 사백여명의부락민은 농구와곤봉을가지고 몰려와서 측량기구를 부시며 측량을방해하기시작하엿스므로 경계중의경관대는 이것을제지하고해산을명령하엿스나 흥분된주민들은 완강히반항 마츰내경관대와 충돌하야 쌍방에부상자를 내게되엿다

武裝警官隊가出動 住民多數를檢擧

平南警察部外에隣近各署에서應援出動

事態는漸次平穩化

이급보를받은 평남경찰부에서는 평양경찰서 선교리경찰서에서 칠십명 진남포경찰서에서 사십명의 무장경관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룡강서로부터 사십명 도합백오십명을 현장으로파견하고 뇌호(瀨戶)경찰부장 북촌(北村) 고등과장 금정(今井)경부보지휘하에 각서간부가 직접 선두에 출동하야 진압에 노력하는 동시에 주모자 일백오십명을 검거하야 오후아홉시까지에 룡강서로 호송하고 엄중히 취조중이며 남어지 주민은 설유석방하야 사태는 평온에 도라갓스므로 수원지 확장문제는 아프로 당국의 고려에 의하야 원만히 해결될것갓다

北岳納稅組合 事件今日送局

북악(北岳)납세조합의 경성부청세금징수원 윤정희(尹正熙)(三四)에 관계된사기횡령사건은 지난이월하순 본정서에서 검거취조한이래 사개월만에 지금에야 겨우취조가 일단락을 지으게되엿스므로 오는십오일사문서위조행사 사기 횡령 사기미수등의 죄명으로 칠천여매의 방대한서류와함께 경성지방법원으로 송국하기로되엿다 그의범죄사실을 보면 그가경성부청세금징수개의 요직에잇슴을기화로 자진 북악(北岳) 북이(北二) 삼팔(三八) 관인(寬仁) 해화(惠化)등 다섯곳의 납세조합을 만드러 노코 『납세는국민의 의무』라는표어미테서 납세장려를 표방하야 경성부청에 조합의발전과 사업의 진행상황을 신고하야서 부로부터 납세장려금일만팔천삼백오십오원구십오전의 교부를 바더가지고 사업비로 만여원을쓰고는 남어지 육천구백여원을 횡령소비하는 한편시골서 부호들이 경성으로 이수해옴을 리용하야자기를통하면 납세사정액이적어진다하고 일만삼천여원의금전을편취해먹엇는데 전기다섯조합의조합원은 실지로이십사명박게는업고 부에신고하기는실로 이천여명을 신고하얏고 그에게 피해를입은사람은 삼천여명에 달하는데이들은 모두시내의 부호와지명인사들로서처음에는 취조하든경찰도갈피를잡을수업시복잡하얏든것이다 이사건은 처음피해당한사람의신고로 엄밀한내사를한다음에 검거의손을 대이게된것으로 공범은업고 단독범행으로 그동안삼사인의유치취조자가잇섯스나결국 윤정희한사람만송국하기로되엿다

北支要所에 案內所增設

일본려행협회에서는 지금까지 북경(北京)천진(天津)청도(靑島)등 각처에 안내소(案內所)를설치하고잇섯는데 사변이후 북지방면의 진전에따라 오는칠월중순부터제남(濟南)장가구(張家口)석가장(石家莊)등지에 『뷰로』의 안내소를 신설하고만철 조선철도 대판상선 일본우선등의차표및배표의 대신판매와 기타려행자의 안내를 하기로되엿다한다

物價騰貴의反面에 勞働賃金은下向

仁川埠頭勞働者罷業의發端

【仁川】 속보 작십사일 아침에 인천항부두에서 인부구백여명이 동맹파업(罷業)을 단행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자세한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부두에잇는 노동자는 창신조(昌信組)영신조(永信組)에서 각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청부하여 화물을 하차한후에 각조에서 수수료를 밧고 남어지인부에게 삭전을 주엇다 작년겨울에는 한시간에 십전씩 주어서 아침다섯시부터 저녁일곱시까지 열네시간노동에 일원사십전을 바더서 가족들의 생활을겨우 유지시켜스나 그후에는 매일 일이잇슬때마다 열네시간을 다채우면 오전을올려주어 일원사십오전이엿는데 최근에와서는 물가가천정부지격으로 앙등(昂騰)함에도 불구하고 한시간에 칠전씩주니 열네시간을 다채우지못하면 불과오륙십전의 삭전으로 오륙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생활을 할도리가 업다하야 구백여명의 부두인부가 파업을하엿다 원인은 결국임금(賃金)을올녀달나는것으로 현재칠전을 십전식으로 하여달나는바 인천경찰서에서는 각관계자와파업한인부를소환하야 조사중인데 각운송업자측의의향과 노동자측의의견을 절충하여 쌍방편의를 도아서취업을시키도록 조사를진행중이라한다 그리고 인천부두의인부는 창신조(昌信組) 영신조(永信組)에 소속된 수효만이 일천오백명에 달하엿스나 이양(移秧)기를당하야 각지농촌에가고 남어지구백여명은 오륙인내지칠팔인의 가족을거느리고잇스므로 외지를가지못하고 하로 갑싼작전을 바더가면서 근근히 일을하여 하로 오륙십전을벌면 가족끼리조반석죽(朝飯夕粥)이나마 이어가다가 그도선박(船舶)의 출입이 업거나 비가올때는 일을계속지 못하며 생게가막연하다한다 금번파업의동기는 각지노동시장에 인부기근시대를마지하여 빗싼작전을주어도 인부를엇지못하야일을못하는곳이 만흔데 인천역시 인부기근시대에잇스면서도생활난으로 문제되엇잇다 해주(海州)에서 건축중인『세멘트』회사에서 인천항의인부 오십여명을하로일원오십전이상 이원을준다고 모집하여간지 불과사흘밧게안되는이때이번 파업이 단행된것을 보아서 파업의 발단은 여기에 잇는듯하다한다 지난십사일에인천항에 입항한 각선박의 화물은 인부구경을 못하고 관계운송업자들은 세관(稅關)구내에잇는 현장(現場)사무원들이 짐을 하차시키는 그야말로 인부기근시대를 연출시키엇다는 인천항설치이래 처음보는 일이라한다 여기에 또한가지는 오는이십삼일부터 하로열다섯시간 노동에도여시한시간에 칠전을줄듯하다하야 육체적 고통을 직접바더가며 생활이안될 경우에는일을 안이할것가름으로 일반운송업자의태도여하에주목을잇글고잇다

橋脚에衝突 穀物船沈沒

廣津橋에서

충북제천군한수면동창리(堤川郡寒水面東倉里)삼백구십번지 김순경(金順敬)(三)외삼인이 목선(木船)에다 미곡삼백십일『가마니』(시가이천오백원)과대두팔십『가마니』(시가칠백오십원)의합계삼천이백오십원어치나되는 곡물을실고십사일오전십일시삼십분경에 광장리(廣壯里)광진교(廣津橋)밋을 지나가다가 다리기둥에 뱃머리를 부듸처서 전복되엿다는데 이를목격한 근처사람들이 직시구원에힘쓴결과 인명에는 피해가업스나 만재한곡물은물속에침몰되엿다고한다

◇中等庭球에 優勝한 養正軍

佳谷驛新設로 列車時間一部改正

경원선(京元線)월정리(月井里) 평강(平康)사이에 오는십육일부터 가곡(佳谷)정거장이 신설되게되므로 철원(鐵原)복계(福溪)사이의 각정거장의 열차도착출발시간은 일부개정되게 되엿다 한다

총딱

▲거리에 나가보면 나날이 달러지는것에 행동의노피와 아스팔트—그리고는 그위를 거러가는 신여성들의 머리맵시일게다 ▲옷가리 걷고 삼단가티 풍성하던 우리네 할머니와 어머니때의 머리시갈이 어느겨에 저러케까지 변해젓슬까 ▲겨우 솔방울만하게 줄어들대로 줄어드러 가치쉬 뒷통수에 매여달린 가련한 품이 그럴바에는 하려니와 ▲이러케만들자면 자르고 지지고 가진기름을 부려야한다니 그공이오죽하랴▲ 하지만 아모리자르고 지지고해도 아푸단말이업는 머리터럭이라고해도 너머나지나친 학대가 아닌가

覇者徽文을이기고 養正堂堂優勝

中等庭球大會終幕

中央佛敎專門學校 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四回全朝鮮 男子中等學校 庭球大會는 十四日午前九時부터 明倫町 佛專과 普成中學코-트에서各校選手團의 熱烈한應援아래열리여 母校의名譽를위하야 잇는힘과 가지術策을다하야 奮鬪한끄테 準決勝戰에도더가 前年度優勝校 徽文對培材養正等의 四校이 白熱戰을演한바 徽文이 善勝을 養正이 培材를 물리처서 決勝戰에서徽文과養正이 覇權을決하게되엿는데 決勝戰이 열리자 第一라운드에서 養正軍 得勢하야 前年度優勝校 徽文軍을擊破하고 榮冠을獲得하야優勝旗及 副賞品을 바덧다 그리고 個人受賞者는 徽文金鼎洙(後衛) 培材金鼎洙(後衛) 景中金在鎔(前衛)等의 三名이다

第二回戰
【大東】 【養正】勝
×(金光勳 李相坤)1…4(李漢旭 梁允錫)○
×(崔玉鉉 林仲植)1…4(李炯植 朴英洙)○
×(蔡鴻雨 金東元)0…4(孫日煥 朴宙茂)○
【培中】勝 【商工】
○(李春幸 尹光欽)4…0(李秉燮 李秀樁)×
×(崔燕進 孟興烈)4…4(白南燮 鄭啓東)○

第三回戰
○(白瀛基 [illegible])4…3(金[illegible]七 宋[illegible])●
【養正】勝 【[illegible]】
○(金在[illegible] [illegible])4…1([illegible] 朴金來)×
○(白永哲 洪得杓)4…0(安吉[illegible] 吳相浩)×
○(金成學 張在[illegible])4…0(尹正鉉 任元淳)×
【培材】勝 【景中】
○(張錫元 孔昭春)4…2(姚[illegible]煥 金在鎔)×
×(崔柏圭 崔石淵)1…4([illegible]重烈 宋在用)○
第二라운드
○(金鼎洙 田浴[illegible])4…1(安秉[illegible] [illegible])×
○(張錫元 孔昭春)4…2([illegible]重烈 宋在用)×
第三라운드
○(李春幸 尹光欽)4…2(白[illegible]煥 鄭啓東)×
○(鄭[illegible] 崔熙進)4…3(李漢旭 梁允錫)×
【培中】勝
×(崔在明 [illegible]容煥)2…4(李炯植 朴英洙)○

×(徐[illegible] 宋相[illegible])1…4([illegible]日煥 朴宙茂)○
第二라운드
×(鄭[illegible] 崔熙進)0…4(李炯植 朴英洙)○
【培中】 【徽文】勝
○(崔基[illegible] 孟興烈)4…3(任勝宰 孫永斗)×
○(徐任[illegible] 白[illegible]基)4…1([illegible] [illegible])×
×(李春幸 尹光欽)2…4(金[illegible] 金[illegible]斗)○
第三라운드
×(崔燕進 孟興烈)0…4(金[illegible] [illegible]斗)○
×(徐任[illegible] 白瀛基)1…4(金[illegible] 金[illegible]斗)○

◇準決勝
【養正】勝 【培材】
○(金成學 張在[illegible])4…1(金鼎洙 田浴[illegible])×
○(白永哲 洪得杓)4…3(張錫元 孔昭春)×
○(金在[illegible] [illegible])4…2(崔柏圭 崔石淵)×

◇決勝戰
【養正】勝 【徽文】
×(梁允[illegible] 李[illegible])1…4(任勝宰 孫永斗)○
○(李[illegible] 朴英洙)4…2([illegible] 金[illegible])×
×(孫日煥 朴宙茂)1…4(金[illegible] 金[illegible]斗)○
第二라운드
×(李炯植 朴英洙)0…4(任勝宰 孫永斗)○
【養正】
○(金在[illegible] [illegible])4…1(任勝宰 孫永斗)×
○(白永哲 洪得杓)4…0([illegible] [illegible])×
○(金成學 張在[illegible])4…2(金[illegible] 金[illegible]斗)×

京電4 銀殖1

京城實業野球리-그…京電對殖銀二回戰은 十四日 午後四時十五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千田(球)西畑、馬場(壘)三氏審判下에 京電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一로 京電再勝하엿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京電	2	0	0	0	0	0	2	0	0	4
殖銀	1	0	0	0	0	0	0	0	0	1

◇審判投捕(京電)黑崎—中州(殖銀)池田、鍋島、佐藤—中島

六大學野球決勝 明大軍優勝

【東京電話同盟】今씨-즌의 覇者를 決하는 早明野球戰은 十四日午後二時三十二分부터 神宮球場에서 藤田(球)井井、三谷、關口(壘)四氏審判아래 早大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A對零으로 明大가 三次覇權을차지하엿다(閉戰四時四十二分)

◇投捕(明治)淸水—宗越(早大)近藤—小楠

早	000000000	0
明	00300200A	4A

4A—0

(寫眞은 東京에 遠征떠난 學生自轉車代表…延禧의 李潤白(左) 徐延萬(右)兩君

'熱'과 '力'의競演에 拍手再請의瀑布

場內는寒時間에超滿員의盛況

本社主催 新人音樂會盛況

우리음악문화의 수준을 양양(昻揚)시키기위하야 각지에서 오래동안 공부차코잇든 신인(新人)들이 한마루에올려서 고향악단에 피로(披露)하는 정성스런 선물의 가지가지—본사가 배풀은 제일회 신인음악회(新人音樂會)는 십사일밤여덟시부터 부민관대강당에서 열리엇다 가륵한 정성의선물이라면 질겨서 바드라는듯이 광중은모여서 싸람사태를이루고 장내는삽시간에 초만원을이루엇다 패기와 야심만이 이밤의 윤리(倫理)이양 스테이지에는 열사람의 젊은예술가들이 토해내는 신선하고 찬란한 오색무지개와 오선(五線)의 은실(銀絲)이 교차되고잇섯다 일본고등음악을 나온 김형로(金炯魯)군의 바스·바리톤 독창을 비롯하야 연해쏘다지는 재청의박수속에서 무장야음악의이순명(李順明)양의 쏘푸라노독창과 김신덕(金信德)양의 피아노 독주가 잇슨뒤 중앙음악화교 이해남(李海男)군의 테-너독창이잇슨뒤 제국음악의 오경심(吳敬心)양의 쏘푸라노 독창은 감격과 흥분과 도취에싸인 관중의 갈채를 붓너서 제일부를 못내엿다 어부에는 제국음악의 이범준(李範俊)군의 테-너독창과 이화음악 최영애(崔永愛)양의 쏘푸라노독창이 끗난다음 중앙음악의 김동진(金東振)군은 자작의 바이오린협주곡"알레그로"를 양산도곡의 서곡으로 시작하야 바다저면에서의 향수를고도에 호소하엿다 그리고 무장야음악 이관옥(李觀玉)양의 쏘푸라노독창과 이경희(李慶熙)양의 피아노 독주로서 모임을 파하엿는데 이밤의 신인들을위한 최희남(崔熙南) 김기우(金基宇)김경훈(金卿勳)삼씨는 반주를 맛터주엇고 간간히 김신덕양이 동배를위하야피아노를 처주어서 우정을베프러주엇다

(사진은 성황이룬신인음악의회장)

今日의運動

▲籠球＝朝鮮籠球協會主催 本社後援 第八回中等學校 及俱樂部 籠球聯盟戰第三日…普成對靑年(午後四時) 中央對協實(午後四時五十分) 景中對鐵中(午後五時四十分)培材對大東(午後六時半) 以上全部安國町徽文小學校코-트(場內整理費十錢)

◇夏期學生籠球리-그…普專B對大學A(午後二時五十分)佛專對法專(午後五時廿分)世專對大學B(午後六時五十分)以上全部淸原里町大學籠球場(觀覽無料)

▲蹴球＝朝鮮蹴球協會主催 第廿回全日本中等學校蹴球選手權大會·朝鮮豫選中央地域豫選第一日…第一回戰 普專對鐵道 靑年會學校對培材、東星對中東 養正對協實 午後一時開始 京城運動場(場內整理費十錢均一)

◇高等蹴球리-그…醫專對法專 午後五時 延專球場(入場無料)

▲庭球京城私立中學校 庭球聯盟主催 本社後援 第十六回京城中等校 庭球聯盟戰 第一日 東星對中央、普成對養正、中央對中東(以上A코-트) 普成對培材、中東對大東、東星對養正(以上B코-트) 中央對徽新、徽文對培材(以上C코-트) 午後四時開始 惠化町普成中學코-트(觀覽無料)

▲野球＝京城實業野球리-그…鐵道對遞信二回戰 午後四時半京城球場(觀覽料＝넷三後面四十錢、一般廿五錢 學生十錢)

◇中等野球리-그…京師對京商一回戰 午後四時 龍山鐵道球場(觀覽無料)

曆

▲六月十五日(水曜)陰五月十八日 ▲干支 戊寅 ▲日出五時十二分 ▲日入七時五十六分 ▲日南中十二時二十四分 ▲晝間十四時四十四分 ▲月出二十一時二十八分 ▲月入七時一分 ▲滿潮(仁川)[illegible]時四十五分과十八時四十五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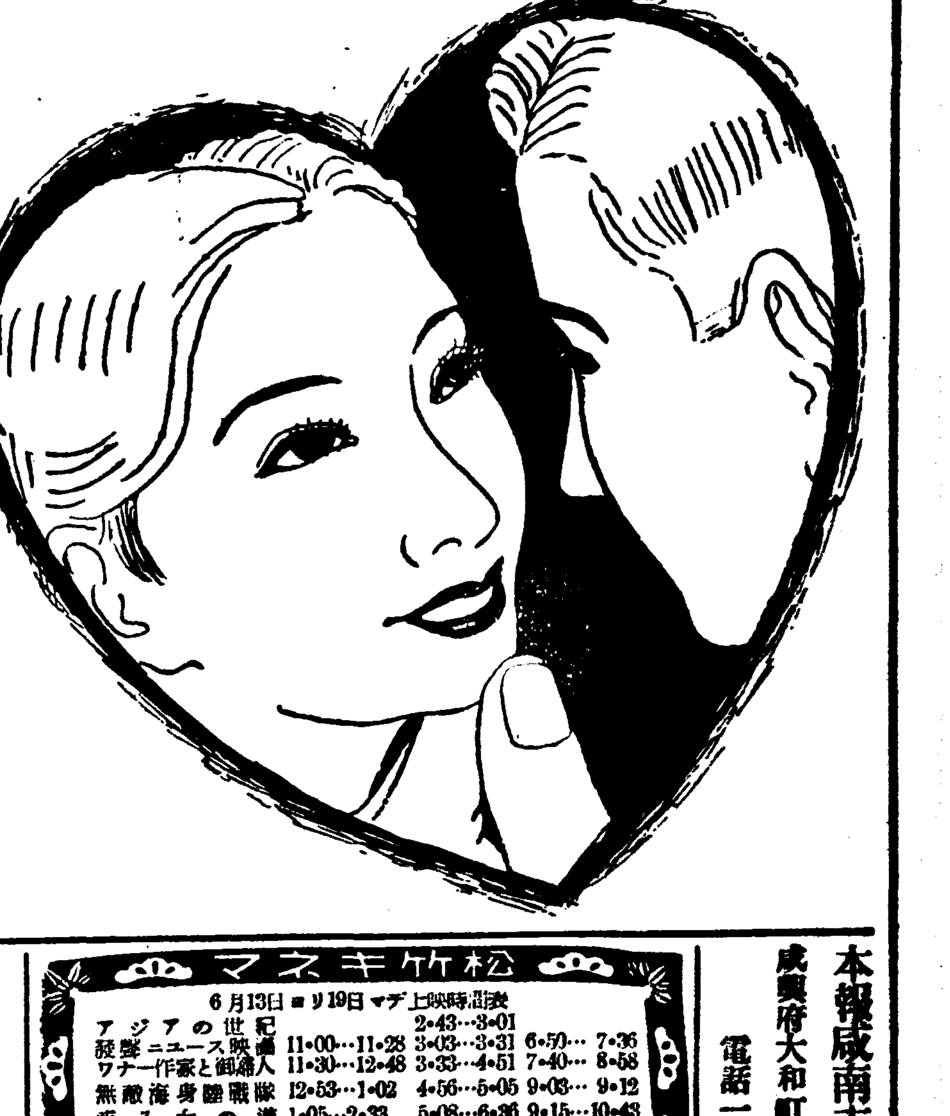
性의 無限한滿足

靑年、中年은勿論이요 아주衰弱한老年이라도

먹으면대번에뜻대로되는

紅帳閨房의秘藥

異性의愛를獲得하려는男子이면 必히此催春藥을곳服用할지어다



靑春男女의性慾 減退와其原因

古來로 英雄은 好色을한다고합니다 그런데 人間一生에잇서서 無上의歡樂을 마음껏 맛보아가며 以上업는 幸福에 취하여야할 靑春期에잇서서 性慾의 減退로 因하야 이靑春의眞味를 모를뿐아니라 몸이 恒常疲勞하여지며倦怠를늣기고 記憶力과 判斷力이 점점줄어가고 陰萎、遺精、夢精、早漏、神經衰弱、不眠症、頭痛또는 不感症으로因하야서로 相對便에滿足을 주지못하야 家庭이 恒常不和하여지며 乃終에는 一個人一家庭에 悲劇을 이르키게하는 이性慾減退로因한 諸症은 靑春男女의體內에 生殖腺홀몬이不足한것이 原因이올시다

中年期男女의 早老原因은

靑年期를지나서 中年期로……人之一生에잇서서 中年期처럼 重要하고 貴重한 時節은업습니다 家庭에잇서서나 社會에잇서서 가장活動을 할 時期입니다 그런데도不拘하고 恒常體力이 衰弱해지며 곳疲勞하여지며 事業이잘조에부지안으며 早老를늣기게되여서로 異性을對하여도 아모感興이 업스리만치 極度로 性慾이 減退되여 家庭幸福을맛보지못함을따라 自然事業에까지失敗를보게되며 夫婦間서로 滿足을주지못하게됨으로 結局은 生離別을하게되는 中年期의男女가 얼마나만습니까 이것亦是體內에호몬이 缺乏하야 그리케됨니다

호몬의作用

이제 새삼스러이 호몬에對한說明을안이어도 讀者諸氏는 호몬에對하여는 잘아실줄압니다。今世界權威博士들이 호몬의 偉力에對하야는 絶對的으로 說明하는것으로 보아서도 其偉力을아실것입니다 사람의體內에 호몬을補給하면 靑春은다시안코 老人은 長生不死한다고하는것은 조금만 醫學常識이잇는사람은 누구나 다알고잇는바이니 더說明을 不要합니다

强力호몬劑 トカピアン의偉力

호몬에對한 說明은 上記한바잇거니와그러면 호몬劑 トカピアン이란藥은 어떠한것인가를 잠간說明하겟습니다 トカピアン은가장 强力한 純精호몬을 主劑로하야、거기다가 人體各機關에榮養을 充進시키고에네루기를 創造하는 『구리고-겐』을 配劑한것으로 人體全機能을 全般的으로 細胞하야 原因으로부터 治療함으로 根本的으로 性慾을增進하는 藥입니다 本劑는 服用하면할사록 精神과效果를 發生하야 靑年이이것을 服用하면 元氣가倍前하야 당장에피가끌어 오르고 勇氣와 膽力을나게하며 旺盛한精力이 體內에充滿되여人間의幸福에서 꿈을 깰줄모르고 壯年은 衰弱해진腦力과 性慾力이靑年期와갓태지며 老年이服用하면 더욱더욱 元氣가旺盛하야生殖機能을發揮하야 다시靑春의歡樂과偉悅속에 人生의幸福을누릴것입니다

注文은直接本舖로

人生의最重要部分을 强하게하야無上한滿足을보게하는藥을責任頒布하며藥効를證明키爲해本舖에서만直接販賣하오니마음대로잘되지안하는悲觀으로지내시는분은조금도주저마시고振替、爲替나、代金引換便으로注文해주시면至急送藥합니다。

服藥報告實例의一部

精神이爽快하여지고 頭痛이完治됨 東京蒲田區 金子元英
前略 生은女子를對하여도 全然慾이 일지안을뿐더러 房事한이튼날머리가무겁고 感氣가들며 일이손에잡히지안튼中 廣告를보고貴硏究所トカピアン六〇錠을 注文하여 服用하니 漸漸머리무겁든症이업서지고 精神이깨끗하여집니다 此人便에 四圓八十錢을보내오니 六〇錠만더보내주시며 服用法도仔細히가르켜주십시요

性慾이倍前하여짐 滿洲 金鎬濟
前略 生은 四十二歲의男子이온데 十數年前부터는 困難을보든中 貴所廣告를보고 三〇錠을注文하야 服用하엿더니 驚異하게效力이 强大하야 前日六〇錠을 또注文하오니 효과가 顯著하므로 이제、更히 百八十錠入一瓶을注文하오니 大至急一瓶만 引換代金으로 付送하야주소서

效力絶大함 朝鮮 李叔賢(印)
敬啓者新春에 貴所大安하심을 仰祝하오며 貴所에서 販賣하시는『トカピアン』을 試服한結果 多大한效力이有하와今番更히 注文하오니 今回는二百錠入二瓶만 引換代金으로 速히下付하소서 敬具

醫學博士 伊藤先生 推獎
高級藥 (男女用)
靈藥 トカピアン
藥價 三〇錠에 二圓五十錢 六〇錠에 四圓八十錢 一二〇錠에 九圓 一八〇錠에 十二圓、送料四十錢 先金注文은送料本所負擔

發賣元 東京漢洋藥學硏究所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ノ一五六 振替口座東京一九三二五番

永樂町 本二〇一四 中央館
毎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一、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七、〇〇
十五日ヨリ十八日マデ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公開
讀賣ニュース
ハヤフサヒデト大河百代 主演 魔人幽靈塔 解結篇
猛獸王チャーリーヤートダルマツ 主演
突貫爆進王
阿部九州男 木下藤吉 主演
人語大島秘記

日活
六週十五日より三日間
國寶文樂座 人形芝居
吉田文五郎 桐竹紋十郎 出演
(元淸·長唄·常盤津·義太夫)
毎夜六時開演致します 座席豫約券を御利用下さい
黃金座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一劑一圓 平和堂 京城堅志洞

若劇
六月十四日より三日間 五〇錢均一

大朝ニュース	12·00	3·15	6·50
愛の花籠	12·10	3·25	7·00
大毎ニュース	1·35	4·50	8·30
ラモナ	1·45	5·00	8·40

(1) 廿世紀フォックス作 ダリル·F·ザナック 主演 ドン·アメチー
(2) フォックス作 ペーター·ローレ 主演

松竹キネマ
6月13日より19日まで上映時間表

アジアの世紀		2·43…3·01	
發聲ニュース映畫	11·00…11·28	3·03…3·31	6·50…7·36
ワナー作家と御婦人	11·30…12·48	3·33…4·51	7·40…8·58
無敵海鳥戰隊	12·53…1·02	4·56…5·05	9·03…9·12
或る女の道	1·05…2·33	5·08…6·36	9·15…10·43

料金大人 50錢 學生 小人 30錢均一
次週豫告—(大船=純情婦人)=(ユーナイト一都會の護符)
早朝割引 開館時間迄 大人40錢 學生小人20錢
明治座

本報咸南支社 咸興府大和町三丁目六 電話一一四三番

中部版

志願兵歡送盛況

【水原】 어번지원병지망자중에서 난관을돌파하고 합격된수원군지원병최영종의 아우 최수업(水原邑新豊町)(二ㄴ갓)은 십이일오후 여섯시이십칠분 봉천행기차로 원대한 포부를품고 수원역을 출발하엿는데역두에는 각학교생도와 각관공서직원 애국부인회원 국방부인회원과 일반시민 수천명이 집합하야 전송하엿는데 이외가치만흔자들이 수원역구내에 집합하기는 수원역설치이후 처음이라한다

【長湍】 지원병시험합격의영광을어든 김종한(金鍾漢)서상규(徐商奎)박수재(朴秀在) 박용래(朴龍來)사군의 영예는 주장단군민의 영예이라고 어진보통전한 서군수(徐郡守) 평산서장(平山署長)은 영예의사군의 출발을 필수잇는대로 성대하게하기 위하야 지난십이일오후한시반에 장단신사에서 각관공서 청년단소방조 각학교 일반유지등 수천명이 참렬리에서 염소봉고제를 성대히 거행한후 동사시면사무소 면다수전송리에 용약출발하엿다

京城府水道擴張

第三期工事는挫折

第四期工事設計

約五百萬圓의厖大한工費로

昭和十七年度에着工

경성부수도과(水道課)에서는 지난소화십일년부터 사개년계획으로 경비이백삼십오만원을 던저 제삼기수도확장(第三期水道擴張)공사에착수하여오는동인데그동안지나사변으로말미아마 철재(鐵材)가폭등되어도저히그최초의계획을 수행할수없음은더러 장래를생각하는계획보다 현재의 인구자연증가에 응할배수(配水)조차 급박하야 드디여 그년도에야사십오만원의 예산을증액하엿음에도불구하고 최초계획의최종년은 명십사년도까지에 계획의 약절반밖게 수행할수없게되고곳여년여동안에는 단수난(斷水難)에 직면하리만큼 문제가 급박하여잇는터이다 최초의 이제삼기확장공사의 계획으로는 십년후의 급수능력을 예산하고 계획을 세운것인데 이계획이 착절되여 결국 오는십륙년도까지에는 근근히 현재경성부민의 오할에급수하고잇는것을 지속하여갈수잇스나마 그이후에는 또제사기확장공사를 하지안코서는 자연증가하여가는 부민에게 급수를 할수업슴으로오는소화십칠년도부터곳공사를착수하여야할 제사기확장계획을 방금 급급히 입안중인데 경비약오백만원을 던저 추후설비를하야 전경성부민의 약팔할가량의 급수능력을 가지도록 맨들려이라고한다

多年奉職한助手 五名을同時解雇

水原自動車會社에서

【水原】 비한한가정에태여난 나이어린소년들이 직업을구하려고 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떠케수원시내자동차주식회사에 조수(助手)의 명목으로 채용되며 이래수년동안 일심전력으로 봉직하다가 일조에 청천벽력가티 해고선고를받은 어린양과가티 순진한 다섯소년이 잇다 그소년들은 지난십일아츰에 전기회사주임 화목(花木)씨로부터 한등의예고도업시 돌연해고명령을받은 다섯소년은 주임화목씨에게 해고이유를 질문코자한즉 화목씨는 몽둥이를다릇으로 숨기고 일절면회를 불허함으로 동회사 사무원이모에게 해고이유를 질문하고 억울한심사를 참지못하야 전기이모를구타하엿다 이소문을 드른 일반은 화목씨를 비난하기를 자동차에는 밤낫정원에 배이상이나 승객을 태우면서 운전수들은대우를 하지아니하야 성의가업시 운전을하므로 종종 교통사고를 내며 치료비부담과 위자료지불로 어느결산기나 적자(赤字)를 내지안는때가 업는데 불고하고 이번에는 수년간 결습대하야기술이 상당한 조수다섯명을 한거번에 해고를하엿스니 금후에는 영향이 적지아니하리라한다

경남일대에는 한동안 전선절취범(電線竊取犯)이 횡행하야 경찰의 신경을 날카롭게하더니 최근에와서는 또한 한강인도교부근을 맡으로 공중변소(公衆便所)며 京城公園(奬忠壇公園)등지에 노흔「펜치」등에 정물까지 파괴하야 경찰에서는 방해가상당하므로 용산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四十餘名有力者會合

富平繁榮會創立

十五日山手町公會堂에서

【仁川】 경인선부평역(富平驛)전에 각종대공장들이 생선지조합에따라 부평역을중심으로 번영회(繁榮會)를조직하기위하야 기보한바와가거니와 오는십오일오후한시부터는 산수정(山手町)공회당(公會堂)에 부천군내유력자대지주들 망라한 사십여명이 회합하야 부평번영회(富平繁榮會)창립총회(創立總會)를개최하리라한다

京仁專用貨車

開放運轉至難

【仁川】 경인간(京仁間)의 전용화차개방문제는 조선운송회사(朝運)의 하청운송점인 조일(朝日)대화(大和)복도(福島)세곳에대한 계약권이 오는삼월말일까지 만료(滿了)하게되엿스므로 어것이 기한전해약을 규속으로써 비합동업자에대해서도 개방할방책이 진행되여왓스나 이상세곳운송점이 계약을 이유로 기한전의해약에 응치안는기세이다 일반비합동업자에 대한전용화차의 개방은 관계자가머리를 알코잇다 곳운송점과 비합동조합측에서는 목하 절충중이나 결국전용화차의 비합동에대한 개방은 곳운송점의 계약기한만료후인 십월일

鐵價暴騰으로

窃盜事件頻繁

【京南】 전시체제하에 철물(鐵物類)의 가격이 폭등함은 각방월이후에 되리라고 판측된다

第八回中等校俱樂部籠球聯盟戰 ②

激烈한速攻戰

培材、中東을擊破

徽新、普成、靑學各勝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八回中等校反 俱樂部籠球聯盟戰第二日은 十四日午後四時七分부터 安國町 徽文小學校 코ー트에서 열린바 中等部B級第一次戰에 徽新이 商工學院을蹴踏히이겻고 A級戰으로 人氣를集中한 昨年의覇者 中東對培材戰은 激烈한速攻戰을 續하더니 培材軍이 敵中東軍을 물리치고 培材軍이 勝利하야 快氣焰을吐하엿다 그리고 普成이 電機를一蹴하고 靑學延長戰에서京畿中學을이겻다

徽新 44 (28 16 … 5 9) 14 商工

(審判李文鎬、曹東換兩氏)

培材 36 (30 6 … 14 9) 23 中東

(審判洪文吉、金容武兩氏)

反前後	【中東】		【培材】	前後反
114	李□□	F	李廷九	040
043	金□辰		胡成根	100
			徐永錫	2121
300	李永雨	C	金萬壽	042
322	李明寶	G	梁聖春	092
170	閔□林		宋永昌	311
000	金炳柱			
8 14 9				6 30 6

反後前	【徽新】		【商工】	前後反
106	鄭□鉉	F	白成珉	101
002	金鼓鉉		李應馥	000
000	李□雨			
264	金利祐		李春三	231
1140	黃材三	C	梁聖赫	201
000	金鍾□			
020	俞弘濬	G	金次坤	222
612	張元一		崔□□	202
002	金□西		黃金鎬	000
5 28 16				9 5 7

普成 39 (19 20 … 15 2) 17 電氣

(審判金容武、尹相奎兩氏)

反後前	【普成】		【電機】	前後反
032	具□現	F	田□東	060
			李根秀	040
066	朴瓚萬		李正煥	020
			姜炯善	003
2010	金□□	C	秀殷尹	003
142	劉在烈	G	金基燮	231
040	姜□善			
020	林信道			
000	姜□□		崔勳□	000
3 19 20				2 15 7

靑學 26 (6 11 9 … 2 12 8) 22 畿中

(審判宋基宇、李文鎬兩氏)

反延後前	【畿中】		【靑學】	前後延反
0022	朴漢洙	F	金亨權	0301
0000	朴中明		朱興順	0420
0002	朴炳鉉		李泰淳	0202
0072	張錫斗	C	劉鉉玉	6204
1010	文德周	G	康展植	3040
2222	崔內祖		金壽昌	0001
32 12 8				9 11 6 8

京城水泳同友會主催下에

全朝鮮中等水上

七月三日京城풀에서

水上競技씨ー즌을마지하야 京城水泳同友會에서는 일즉부터 計畫中이던 第一回全朝鮮中等水上競技大會를 本社運動部後援아래 오는七月三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풀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競技種目은 ▲自由型 百米 二百米 四百米 千五百米▲平泳 百米 二百米▲背泳 百米 二百米▲릴레ー 二百米 八百米 三百米메도레ー 等이며 올림픽種目에는 各優勝者에게 優勝盃를 授與하기로되엿고 得點은 一等七點 二等五點 三等四點 四等三點 五等二點 六等一點으로 最高得點校에게는 優勝盃를 授與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參加希望校는 六月廿三日까지 朝鮮日報社運動部로 所屬學校名 氏名年齡學年等을明記하야 申請하기를바란다 고한다

全延專軍은

早大와對峙

全日本籠球對陣

【東京電話同盟】 第四回全日本籠球選手權大會는 來十七、八、九의三日間 東大及神宮競技場에서 擧行될터이며 그對陣은 다음과가트며 全延專은 第一回戰에不戰勝으로 準決勝에드러가 早大와對時케되엿다

▲第一日(十七日)
(第一回戰)
(A)關學(關西)對名古屋高商(東海)

▲第二日(十八日)(於神宮)
(準決勝)
慶應(關東)對A의勝者
早大(關東)對全延專(朝鮮)

▲第三日(十九日)(於神宮)
決勝戰

學生籠球리ー그

學生夏季籠球리ー그戰은 十四日午後四時부터 大學코ー트에서 (行한바 그戰績은 다음과가다

普專B 12 (26 46 … 10 8) 18 大學B

普專B 109 (63 46 … 12 8) 20 師專

十餘都市를視察

二十日間豫定으로

江華産組員內地에出發

【江華】 강화산업조합에서는 동조합원으로 가내공업에 착실한 사람으로 선발하야 내지각공업도시 시찰을 하도록하야 그들의장래를 고무코저 작년도부터 삼정(三井)을산회사와 경기도의 후원으로 실행하고자 하엿던바 시국판게로 연기코 잇섯는데금월십일일 동경의 여정에오르게되어 박규훈 김평목(朴圭勳金平默)양씨의 인솔하에 출발하여다 당일 본보강화지국을 래방직시 신사에참배한후 오전구시 반차로 출정한바 단원은 모두 이십이명으로 강화군서는 처음되는 내지시찰단이데 그들의귀환후 기대가 일반에게 크다고한다

(寫眞은 江華本支局을來訪한 視察團一行)

人事集會

▲橋本彌織氏(江華郡産業技手)轉任人事次 本報江華支局來訪

▲徐上康二氏(同上)

庭球場업는開城

府民保健에影響至大

【開城】 조선의스포ー츠열은 년년이 격렬해가고 이에 반하야 각종경기의 기술이 놀랄만큼 진보향상되여가는이때 개성스포ー츠계의현상만은 해마다퇴보하고잇다 이가튼원인은 지방청년들의운동열이 부족함에도잇다고보겟스나 그보다도 일반운동가를 배양할만한 체육기관이업슴과함께 공중이사용하는 운동장이불비해잇슴도 한원인이라본다 부내고려정(高麗町)에는 공설그라운드가잇다고하나 이곳에는 정구장가튼 설비는 전혀볼수업고 또는 재래공중이사용튼 정구장으로 이삼처의코ー트는조차 지금엔수택지로화하야버렷다 그래서 정구경기가 왕성해가는 여름철을마지하고 개성에는 공중이사용할만한 코ー트가 전혀업기때문에 이러한통에 심심울다변하고 기술흥여하기에도 부당국의운동시설의불비한점을 비난하는소리가자못놉다

이에 거자는 지난십삼일 송부호(宋府尹)을 방문코 이문제를 말하니 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記『개성은 부제실시이래 공설운동장이생겻고 이곳에 정구코ー트도 일부분 설치햇든니 그후 이곳을 수영장(水泳場)으로 맨드러버린후 아즉 정구장설비를 못하엿스니 일반은 섭섭해하오 당국은이점에대하야 엇지생각하시는지』

宋씨는 유감으로 생각한다금년은 예산면에 신규사업이전부 삭감되여 뜻을 이루지못햇스나 래년에는 그여히시설토록 힘써보겟소 운운

仁川

제오회 전조선공업자대회는 본보에수차보도한바와가티 오는이십삼일사일 부터 인천중학교에서 개최되는바 지난십일까지 각지로부터 인천에 도달한 제출의안은다음과가다

一、朝鮮工業協會提案
一、貿易工業의振興을 當局에要望의件
二、中小工業의 助成發展에關하야 當局에要望의件
三、代用工業과 廢品工業의發展을促進하도록 當局에要望의件
四、工業品材料輸入配給을 圓滑하도록 當局에要望의件
五、工業燃料로서 石炭骸炭等의 配給充實을 當局에要望의件
六、職工과 工場從業員의 爭奪防止에對하야 打合할件
仁川工業俱樂部提出
一、燃料(石炭)의需給緩和에關하야 當局에要望할件
平壤工業俱樂部提出
一、木質燃料의節約에伴하야 內鮮工業用石炭及煉炭의節約을圖謀하야 價格昂騰防止에關하야 當局에要望의件
二、朝鮮의現狀으로보아 現行朝鮮市街地計畫令에依하야 建築取締의 緩和와相當年限의 假建築容認方法을當局에要望의件
三、工業品、材料需給의合理化를 圖謀하기爲하야 適當한調整機關設置를 當局에要望의件
四、軍需工業의下請及 平和工業의 轉換等에關한 指導助成機關을特設할것
咸興鐵工組合提出
一、全鮮各主要都市에서 工業技術者와 熟練工養成方針을 當局에要望의件

臨迫한工業者大會

各地에서重大議案續出

燃料配給과建築取締緩和等

小作爭議激增

舍音들의作戲로

富川郡에벌서卅一件

【仁川】 부천군(富川郡)내의 금년일월부터 오월말일까지 군에드러온 소작쟁의(小作爭議)건수는 벌써 삼십이건에달한다는데 이것을 전년일년동안사건에비하면 참으로 놀날만지 팔할의증가를 보엿다 그원인은 지주나 소작인사이에는 아무런 감정도업시 중간에든 사음의농락으로인하야 그와가티 무지한소작인들을 농락하며 작권이동을 임의대로한 악덕사음을 군에서는 단호처분하리라한다

楊平警察署主催

防空講習會盛況

【楊平】 현하시국에대처하야 일반민중에게 방공(防空)에대한인식을 철저히하고저 양평경찰서에서는 지난십、십일일 량일간 양평서 심상소학교 강당에서아부(阿部)대좌를강사로 초청하고

水仁鐵道길목에

遮斷機設置要望

【仁川】 인천부 대화정(大和町)에잇는 조선경동회사(朝鮮鐵業會社) 입구와 일출정(日出町)에잇는인천 토목출장소(仁川土木出張所)와 수인(水仁)철도선로길목에는 여름동안하야 송도유원(松島遊園)으로 왕래하는 자동차와 기동차의 회수가 빈번한데 차단기(遮斷機)가 업서서일반에게 위험성이 만흠으로 부근의 주민은 차단기의 설치를요망하고잇다

人道橋電飾請願

漢江遊船業者組合에서

【京南】 평시한경성부민을 엇기로부터 한강유원지의 경성부 인도교 한강(漢江)을 생명선으로 생활을해오는 한강유선업자조합(漢江遊船業者組合)에서는 삼오후다섯시부터 소화회(昭和丸)선상에서 제이회한강유선업영회(漢江遊船業營會)를열고 오후다섯시부터 금(金)보안수입증대한다로 경성부판계자 경전(京電)영흥(永興)비쿠회사판계자등이 출석하여 여러가지중요사항을 토의한다음 론내 가로등시설과 청년단가 하야 방공강습회(防空講習會)를 에 대하여 일반시국 협의하엿는데 특히 이문제로는 인도교에 「일류미네숀」을 장식하여달라고 청원키로하엿다한다

第二部常任委員

十四日七名改選

경성부에서는 십사일오후두시부터 부청회의실에서 제이교육부회(第二敎育部會)를열엇다 상임위원의 보고가잇슨다음 금년도 상임위원을 개선하엿는바 그결과 다음의일곱의원이 당선되엿다

◇第二部經濟常任委員＝李昌業、韓萬熙、尹宇植、朴勝明、金顯植、韓相龍、梁在昶

農民데ー移秧

富川郡素砂에서

京畿道廳員은

제십일회 「농민데ー」경기의행사는 십삼일오전열한시부터 판내부천군소사면(富川郡素砂面)경기도농사시험장소유의 시작답(試作畓)에서 각각(甘蔗)경기도지사와 심택(深澤) 사단장이하관민 어백여명이 참가하야 모심기를 성대하게거행하엿다

京城府廳員은

祭基町에서

십사일은 「전국농민데ー」에해당함으로 경성부청에서는 오전열한시부터 동부출장소관내제기정(祭基町)재조합(保護省)에서향례의기념이앙(移秧)을하엿다

이러케치료하시사

明朗한女性美를도로차저주십시요

자궁속에 병균이들어가서 부인병을 알케되든것이므로 직접병화근인 자궁에 帝大病院서쓰는『와세돈球』로 치료하시면단시일안에 근치됩니다

꽃피는봄날에 몸시아래배가 쑤시고 명기며 허리가 끈어지듯이 아프면서 몸서리칠만큼 악취가나는 대하증이 흘너서 고통을맛고게신 여러분!

월경이 고르지못하거나 월경때면 늦게되도록흔시일으며들도중과 상기증이나고 회색이 나빠서 번민으로 신세타령으로 세월을 보내실줄잇습니다

그러면 어떤원인으로 그러한증세가 생기느냐하면 자궁속조직에병균이 들어가서 그곳을 붓고 염이나게하며 흥집을만들어서 쑤시고 절이게하는만큼 그곳에서 생기는 진물과고름어즉대하물이니 병화근ー즉 자궁속을직접 치료해버리시면 대하증은 물론이요 지금까지에 여러분의 증세는 모조리 업서집니다

그러대로에 무엇보다도 먼저 자궁속에서 活動하고잇는병균을 모조리 죽여야만되는데 이것을 곳치시라고 혼이 먹는부인약종류ー 당양물약, 환약,가루약등을 장복한든가 혹은 專門醫師가권치안는민간에흔히잇는 거문빗나는 넛는약혹은 약한개를가지고 一週日이나쓰는것等을써서 오히려병세를 중하게하여서 비참한신세를 맛치시는분이 만흠은 참으로 딱한노릇입니다

그것은 먹는약은 배속을통하야 그곳에일으키기때문에낫지안으며 넛는약이지라도 유명한病院의임상치료실험이 업는까닭에 일장일단의 폐단이잇는것이니 반드시 信用과약효가훌륭한『와세돈球』로 곳처주시사 전래의기쁨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과가튼증세의분은 와세돈球로곳낫습니다

아래배 아픈것 — 아래배와 허리가 쑤시고 아푸며 진땀이 흘으며 월경때면 신열이나고 더욱아퍼서 멧칠식 눕게되시는분, 월경이 고르지못하고 월경에 분량이 적엇다만엇다하는분 눌 두통과 현기가심한분……

대하증 — 처음에는 코가튼것이나오다가 차차色이돌며 악취가나게되고 자궁이 몹시아프며 오줌이자즈며 국부가쑤시고절니며 가려웁고 열이나는분……

눈거미 — 머리털이 몹시빠지고 비듬이만허저서 몸시가렵고 얼굴에 잔리가생기며 눈거미가생기고살결이 거칠어지는분……

자복 업는분 — 결혼한지二、三年이되여도아직것 아해를배지못하시는분、부부화합에 고통을늣기며 자미를모르시는분、류산하시는분

어상과가튼 증세가잇는분은 조금도주저마시고와세돈球로치료하시면 무슨약보다도속히근치되나니 중한부인병은하로에한번식 경한분은 이틀에한개식이면충분합니다 재래의거문빗나는넛는약처름거문물이흘너내리든가적꺼이가나오는법이업고넛키에도조금도이상한기분이듯지안코며남들에자리에서도 유명한병원의실험으로써의약이 가효과를어더서단시일안에근치되는약입니다

와세돈球로흔만한리치원하고잇는有名한大病院의一部

東京帝國大學病院	日本醫科大學病院	救世軍病院
京都帝國大學病院	大阪醫科大學病院	名古屋鐵道病院
九州帝國大學病院	長崎醫科大學病院	大阪鐵道病院
東北帝國大學病院	日本赤十字社病院	仙臺鐵道病院
	東京鐵道病院	C路加病院

『女性의新生理學』이라는책을 조선문으로된 어느분에게도거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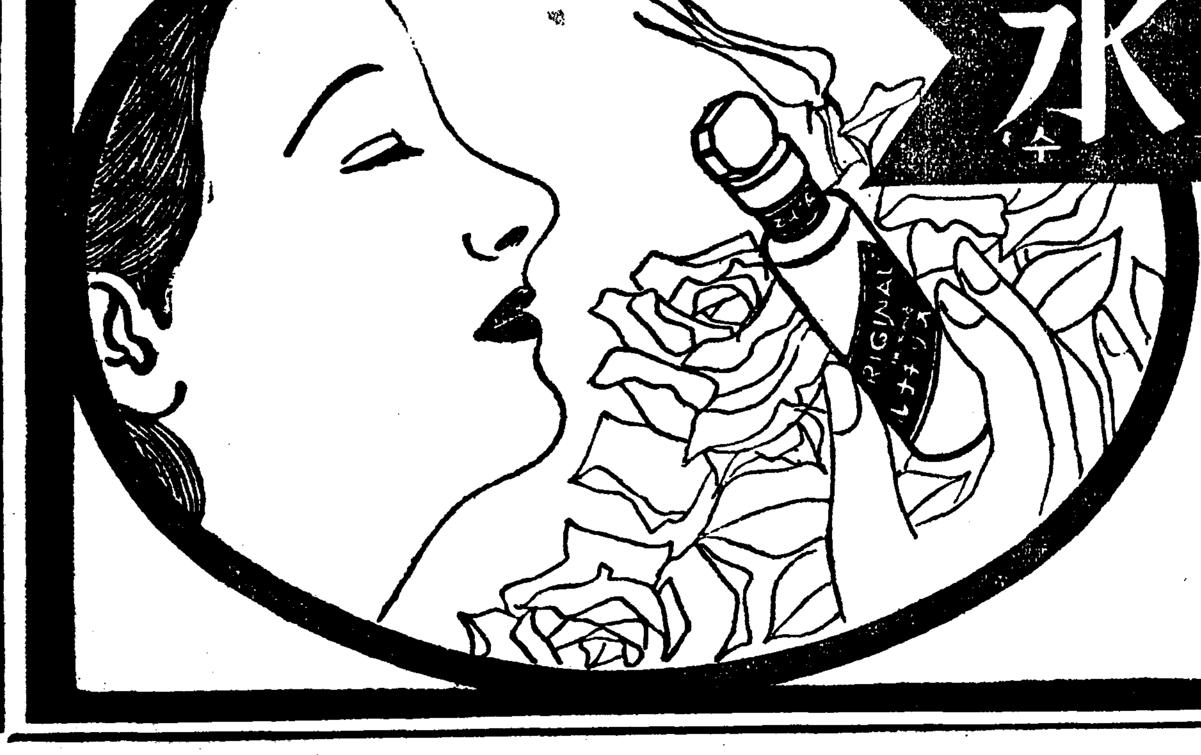
논낫곳이병인부 와세돈球 帝國大學病院婦人科使用

약한게 三분이면 치료효과가 나타나는 부인병근치약『와세돈球』는 각지에잇는 帝大病院、赤十字病院을 위시로 유명한병원에서 현재매일 수만은 환자를 구원하고잇는 의사전문약을 처음으로민간에 제공한약인만큼 그신용과 우수한효과는 더말슴드리지안어도 잘아실줄밋사오며 본보에독자에한하야 우표삼십전을선송하시면 남어지송료를부담하고 대금인으로송약해드립니다

東京市芝區西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二五〇一九番)

약가는 十二日分ー圓廿錢、廿四日分ー二圓卅錢、卅六日分ー三圓四十錢(病院用卅日分)三圓이며주지하시면『부인병치료서』를거저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더위를잇스고 서늘하게하여주는 좋은향기!

좋은향기가오래가는

原料香水 オリヂナル香水 (오리지나루향수)

뜨거운해ㅅ빛에 부은향로흙이 물붓는듯한 여름날에 더위를잇게하고 서늘한기분으로만들어주는 오리지나루의좋은향기는 여러분께靑春의꿈을꿈꾸게하여주며 짓뿜이될것입니다

그와더부러 여러분의마음에꼭맛는 오리지나루香水의좋은향기는 더한층 기분을 상쾌케하여주며 끝없는魅力과 어여쁨을 분뭇어줄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입하실때 남의게대하실때 사무나 공부하실때에는 반듯이 한방울식사용하여주시면 꽃봉어여쁨을보존하실수잇으며 동산에노는듯한상쾌한기분을수며 피곤을잇고 더위를물으게됨으로 일에能率이나시게될것입니다

歐米各國의有名한 高貴의花精三十八種에서골나만든 진국의香水임으로 좋은향기가오래가며 어느분의게도 꼭맛읍니다

姊妹香水로 高尙한 향기를가진 「오리지나루로ー즈」와「오리지나루바이오레스트」「오리지나루리ー」가잇읍니다

小 中 大 瓶 瓶 瓶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安藤井筒堂

長篇小說

薄命 (24)

韓龍雲 作
鄭玄雄 畵

誘惑【二四】

그들은 령동(嶺東)으로가서 배를라고 원산(元山)을 거처서서울을 가기로 하엿다 『령동 이란것은 령서(嶺西)를 상대로된 명사인데 천하의 선산(鮮山)으로 유명한 백두산(白頭山)의 조맥(祖脈)이 남으로 떠려저서 유명한것으로는 마천령(摩天嶺) 설봉산(雪峰山)을 거처서 만고명산 금강산이되고 설악산으로 오대산(五臺山)으로태백산(太白山)으로 지리산(智異山)으로 외완 삼천여리를 뻐친산맥중에서 강원도에 이르러서는 그산맥의 서쪽을 령서라하고 동쪽을 령동이라 하는대령서는 순전한 산협지대요 령동은 접부가 해변이어서 지리상으로 정반대가되는고로 령서에서 생장한 사람과 령동에서 생장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양식과 풍속(習慣)의 다른것은 물론이고 우주관 인생관 까지도 다르게 되는것이다 그런대 특별히 그지대에서만 생장하야서 다른곳을 널리보지못한 녀자로서는 더욱 그러한것이다

순영이가 집을 나온뒤에 제일차로 큰 충동을 바든것은 바다를 보겟이엇다 순영이는 무서운 산골에서 생장하야서 세상에는 뫼지와 산만 잇는줄알고 물이라면 가재나 잡고 빨래나하는 시내물만을 보앗스며 하늘도 조고마한 산골 하늘만을보앗든것이다 그리하다가 가이업는 망망대해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때에 놀내지아니할수가 업섯다 순영이는 바다끗을 보랴고 하얏스나 눈이자라지 못하얏다 다만 바다와하늘이 맛다은곳을 볼수잇섯다 하늘도바다 하늘은 산골 하늘보다 무척 넓엇다 바다가 하늘이지 하늘이 바다이지 분간할수조차업섯다 바다가 아래잇는 하늘갓기도 하고 하늘이위에잇는 바다갓기도 하얏다 만경창파에 수가업는 크고적은 배들이 오락가락하는것이라든지 산가튼 큰물결이 떵떵이를 부실뜨서 바다가으로 몰려오는것이라든지 도저히 무엇이라고 상상할수가업섯다 그러고 지원이 물라간지 고기잡는 그물들을 널어노흔것이라든지 여자들이 펄펄뛰는 고기 한지를 이고서 바뿐거름으로 다니는것이라든지 그러한 모든것을 보게되는 순영이는 완연히 이세상을 떠나서다른세상을 보는것가텃다 순영이는 황홀하고 멍멍하야서 자기를 일허버린것 가텃다 그리하야사람은 팔고 조고마한 새나 버레가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자기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항할만한용기는 업을뜻 하얏다 자기가이세상에 나와서 열네살이 되도록 자기의 생각으로 안다 모른다 옳다 그르다 조타 궂다하는등의 소위지식이라고 하는것이 지극히적고 좁엇든것을 자연히 느끼게 되엿다 그러고이세상의 모든것은 다위대한 실재(實在)인데 자기만이 지극히 적은몬지듯 하얏다

『이게 어듸냐?』

하는 순영이는 처음에는 바다의 경색이나 어촌의 풍물이나 기타 모든것을 처음 볼뿐아니라 상상도 할수업슬만치 업청나게 황홀하야서 정신을일흔 사람처럼 다만 덤덤할뿐 이엇으나 조금 진정이된 뒤에는무엇을 알고시펏다 그리하야 송씨에게 무러볼까 하다가 구식 늙은이보다 학교공부를하는 운옥이가 나을뜻하야서 운옥이에게 무럿다

『예가 대포(大浦)다』

『대포가 어듸땅이냐?』

순영이는 자기의집에서 떠여나 멀리온뜻 시골뿐 아니라 모든것이 딴세상 가튼므로 거기는 강원도땅이 아니뿐 아니라 혹은 조선땅이 아닐는지도몰랏다

『양양(襄陽)땅이다』

『양양은 어델까?』

『양양도 강원도 땅이지』

『그래며 어겟도 강원도 땅이야』

하는 순영이는 귀에 익은강원도 땅이라는 말을 듯고서야 안심이 되는뜻 하얏다

『그런대 저러케 만한 바다물이 다 어듸서 나올까?』

순영이는 계속하야 뭇는다

『나오기는 어듸서 나와 본래부터 잇는것이지』

『본래라도 어듸서든지 나왓기에 잇지 안나온것이 어떠케 잇니?』

『아니야 이애 저러케 만한물이 어듸서 나오것니 제절로 생긴것이지』

그들의 문답은 심상하얏으나 우연히도 수만한 학자들이 아직까지 분명히 해결하지못한 큰 문제에 저촉하얏다

"作家와 貴婦人"─와─너作品으로 監督은『로이드·베─콘』이야기는 美貌의마─지(마리온·데비스扮)가 醜貌해가지고 流行作家(로버─트·몽고메리扮)의 秘書로 되여가지고 여러가지 로맨스와 悲喜劇이 演出된다 松竹의『어떤女子의길』과함께 十三日부터 十九日까지 市內明治座에서 上映

映畫

市內若草劇場에서는 十四日부터三日間『로베르타·영』과『톱·햇』主演의『라모나』와『로버─트·테일러』주연의『사랑의포로작전』을 上演한다고

演藝消息

徐光霽(映畵監督)氏는 這間東京으로 映畵事情視察次갓다가 再昨歸京人事次本社來訪

라디오 JODK

婦人時間 (十五日午後一、一五分)

人工寶石이야기 東亞日報 黃信德

보석중의왕은 금강석이겟지요 마는 홍옥(루비─)의 청옥 벽옥(사파이어─)의청신(淸新)진주의 순정(純情)들도 모두 그것그것의 조화로운맛을가지고 잇습니다 그래서 무론주옥만흔 보석들은 그찬연한광택과 요염한비슴가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인공보석은 어떠케 만드는가 종류는 몃가지나되나 자연보석과는 어떠한『로─맨스』가잇석에는 어떠한 이러한것을 말슴해보겟습니다

비올라獨奏 (十五日午後八時半)

비올라 桂貞植
피아노伴奏 金元福

비올라協奏曲─포─사이스作曲─

『포─사이스』의곡이 조선서 연주되기는 이번이처음입니다. 우리악단제一류계의 제일인자인 계정식(桂貞植)박사를통해서 그의 곡이 처음으로 우리음악애호가에 들리워짐도 의의잇는일입니다

이곡은 세악장(樂章)으로 나누어잇습니다 제일악장─알레그로 스피리튜오소, 제이악장─안단테 소스테누─토, 제삼악장─알레그로 콘브리오입니다

어린이時間 (十五日午後六時半)

童話 길떠난네김생 高在天

인제는 아조늙어서 마음대로 일을 못하게된 나귀가 하루는 생각하여보엇니다『일도 잘못하면서 주인집에 엇는것은 대단히 미안한일이다 차라리 어듸로가서 내마음대로 지내자』그래서 그는 정처업시 길을 떠낫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귀와가튼 신세의 개 고양이 닭이 잇섯습니다 그들은 아조친한동무가 되여서 길을 떠낫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도적놈들이 모여잇는 집에 다달엇습니다 네짐생은 도적놈들을 내쫏고서 그한적한 수풀속에서자미잇게지내갓습니다

講演 (十五日午後七時)

朝鮮山水大系 金東熹

조선의산계(山系)는 백두산(白頭山)이조종입니다 백두산은 서장(西藏)의 곤륜(崑崙)산계의 한줄기가빼처온것입니다 이백두산에서 줄기가빼처 함경(咸鏡)남북도계(道界)의 북으로부터 서남으로 빼더내려온 북부대간(北部大幹)과 강원도(江原道)북쪽의 박달령(朴達嶺)으로부터동남으로빼더동부대간과 경상(慶尙)북도 태백산(太白山)으로부터 서남으로빼더 남부대간의三대간이 조선의산계를 이루고잇습니다 물이라는산세에 의하야 결정되는 것이므로 수계(水系)는 결국이 상의산계에따라서 흘러가지고동해사면(斜面)남해사면 서해사면으로흘러서 바다로드러가게됩니다 오늘과명일량일동안에말슴하고자합니다

放送 JODK 경성방송

十五日 (水曜)

◇午前一〇時 朝鮮總督府陸軍兵志願者訓練所開所式實況─京城帝國大學構內同訓練所(城大講堂)으로부터中繼─
◇正午 (東) 時報
◇午後一時一五分 레코─드音樂 婦人時間 人工寶石이야기 東亞日報 黃信德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 (決勝戰이有한時)─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 京城實業野球리─그『遞信─鐵道』決勝戰(雨天順延)
◇同六時二〇分 童話『길떠난네김생』 高在天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朝鮮山水大系』(一) 每日新報 金東熹
◇同八時 講演『倫理의根底』 佛專 金斗憲
◇同八時二〇分 라디오常識
◇同八時三〇分 비올라獨奏 빠올라協奏曲 포─사이스作曲第一樂章 알레그로 스피리튜오스 第二樂章 안단테 소스테누─토 第三樂章 알레그로콘브리오 (비올라 桂貞植 피아노 金元福)
◇同八時五五分 西道歌謠 一、打鈴 二、긴아리 三、戎馬 四、念佛 張鶴仙 金秋月
◇同九時一五分 伽倻琴과 大笒 一、새打鈴 二、신아위 伽倻琴 韓成基 大笒 朴鍾得 杖鼓 鄭甲俊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正午(城)浪花節
◇午後六時(東)偉人傳
◇同六時二五分(城)講演
◇同七時三〇分(城)라디오常識
◇同七時四〇分(東)講演
◇同八時(東)講談
◇同八時三〇分(東)物語
◇同八時五五分(太)義太夫

十六日 (木曜)

◇正午(東)時報 레코─드音樂
◇午後一時一五分 衞生講演『日射病이야기』 權寧禹
◇同四時 繼續野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第二十回全日本中等野球選手權大會朝鮮中部豫選戰準決勝戰』
◇同六時三〇分 名作이야기『불상한동모』─라미─原作 朴義燮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朝鮮山水大系』(二) 金東熹
◇同八時 (東) 合唱─無伴奏! 一、코러─르『離別할때』 빠하作曲 二、달게주엇으로오라 同 三、너에는我手下에잇다同 四、사랑하셔서는에수여同 五、적은 비둘기는좋추지안는다獨逸民謠 六、인스브룩크를버리고 이자크作曲 七、잠자는精氣獨逸民謠 八、復活祭歌十二世紀獨逸民謠 아우그스트·용켈合唱團 指揮 아우그스트·용켈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華容道 歌手 韓成俊 方應
◇同九時 漫談 八不出大會 金星
◇同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七) 李完應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 (二九)
◇正午 (城) 管絃樂
◇午後六時 (城) 하─모니카
◇同七時三〇分 (大) 歌謠
◇同七時四〇分 (城) 講演
◇同八時 (東) 講談
◇同八時三〇分 (熊) 詩吟
◇同八時四〇分 (東) 古曲
◇同九時 (熊) 物語

十七日 (金曜)

◇午前一〇時三〇分 料理製法강좌『日用品時勢』
◇正午 (東) 時報 풀루트獨奏와오르간獨奏(레코─드)
◇午後一時一五分 家庭時間『시원한여름料理』 尹德喜
◇同四時五五分 蹴球試合實況─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京城)『第二十回全日本蹴球選手權大會朝鮮中部豫選戰』決勝戰
◇同六時三〇分 라듸오學校『臺灣이야기』 金道泰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講演『水泳이야기』(一) 普成中學 趙英河
◇同八時 라듸오드라마『姉妹佛心』─金健作 人物 아버지…朴齊行 英子…池崔順 英愛…池京順 英順…池季順 文…朴昌煥 朴書房…柳玄 植…南星雨 紹介所員…丁一燮 解說 演出 效果 京友會
◇同八時四〇分 歌曲 一、羽調 頭擧 二、半葉 三、弄 四、編 金蕉航 權花香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時事解說 朝鮮日報 咸尙勳
◇同九時二〇分 라듸오常識
◇同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二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支那語講座 (二十九)
◇正午 (名) 만돌린
◇午後六時(大) 어야기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同七時三〇分(臺北) 講演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八時 (東)新日本音樂
◇同八時一五分(東) 講演
◇同八時四五分(東)童謠曲
◇同九時 (東) 時事解說

資生堂 中煉齒磨

新發賣

중연치마 十五전

아츰에도 食後에도 자기前에도

强한齒는健康을만들고
하얀齒는魅力을낫는다

精選한粉末原料에適當한潤濕作用을너코滅菌作用이强한藥劑를添加해서粉末이飛散하는일이업고琺瑯質을害하지안코며口中을完全히淸掃하는同時에虫齒를豫防해서自然히光澤잇는齒牙를만듭니다 거기다香味가極히佳快하고湯茶等의味覺을조곰도損傷치안습니다

SHISEIDO GINZA TOKYO

一家에一瓶·美容에萬能

ヘチマコロン
헤치마코론

맑은하늘、푸른물、살결이밀빗으로퓌어나는季節이각가웟다!
자コロン으로여름의準備를!
아름다운素肌의青春이、自然美의極致가、당신의우에微笑합니다

40錢 63錢 95錢

本舖 東京
株式會社☆近源商店